

우리네 아이들

1991년 7월 제 10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

“지자체의 관할사무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일무들을 다루고 있어 지자체운영에 주민 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지방자치의 위치정비

짜임새

기획 / 2	김현민
지방자치와 택아정책	
아동교육 / 7	교육부
선생님 통일이 뭐예요, 엄마 통일이 뭐야?	
시사칼럼 / 13	황은희
91년도 반을 보내며	
탐방 / 농촌택아소 17	편집부
‘원동 놀이방’을 찾아	
생활문화 / 22	민족 입거리 연구회
웃이 아이들을 가두고 있다.	
수 필 / 25	이경순
어린이날 생긴 일	
여성문제 / 27	홍영주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책 소개 / 32	
우리 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연합회 소식 / 33	
함께 배우는 노래 / 36	

우리네 아이들

지방자치와 택아정책

김 헌 민 (이대행정학과 교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의원들이 국민투표로 선출되어 30년만에 부활하는 지방자치제도(지자체)의 기본토대가 마련되었다. 위에서 성립된 결정이 아래로 지시되는 중앙집권체제와는 달리, 의사결정이 아래에서부터 수렴되어 위로 반영되는 지자체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지역의 복지, 경제발전, 공공서비스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불리운다. 지자체가 실시됨으로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의원들과 단체장의 직접 선출외에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복지, 문화의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본고에서는 지자체하에 택아정책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지자체의 기본특성을 간략히 논의한 다음 택아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분담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지자체의 기본특성

▶ 지자체의 유형

지방자치제도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독립되고 동등한 위치에 있고 자치행정의 범위가 가장 넓은 완전자치형과 모든 지방에 관련된 업무가 그 지역에 있는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이 처리하여 지방자치의 흔적을 거의 볼 수 없는 완전관치형이 있고 그 사이에 크게 두가지 구분하여 자치-관치이원형과 관치위주 이원형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단체 내에 자치행정기관과 국가의 하부기관이 함께 있고 지자체들이 내부부의 지도와 감독하에 있어 자치-관치 이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 업무와 재원의 종류

지자체의 업무는 자체 법규에 따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자치업무와 중앙정부나 상위

“지자체의 관할사무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업무들을 다루고 있어 지자체운영에 주민 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지자체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위임업무가 있다. 자체업무는 자치단체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여 실행하는데 업무분야에 따라 국가의 기본지침을 반영해야하는 정도가 다르다. 지자체의 재원은 자체재원(지방세와 세이수입)과 의존재원(지방재정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존재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것으로 사용의 범위나 사업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교부세와 그것이 제한되어 있는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재원의 비율이 클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은 단체이고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자체의 자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교부세와 보조금의 수혜액을 최대로 확보하는 지자체의 능력에 따라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경우도 지자체의 업무수행 능력을 어느정도 반영하는 것이다.

▶ 지자체의 기능과 사무

지자체의 기능과 사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자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외에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노인, 아동, 심신장애자, 청소년 및 부녀복지, 생활곤궁자 보호와 지원,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 청소와 오물수거 및 처리 등이 포

함되어 있다. 또한 산업진흥, 지역개발, 생활환경시설, 교육, 체육, 문화 및 지역 민방위에 관한 사무도 지자체의 의무에 속한다. 지자체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로는 국가단위의 사무들로, 외교, 국방, 물가정책, 국제무역, 전국 통신, 교통망에 관한 사무들이다. 다시말해 지자체의 관할 사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업무들을 다루고 있어 지자체운영에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 지자체와 주민참여

지자체와 주민참여는 떼어놓을 수 없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치행정의 속성이다. 주민참여는 일반주민이 공적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으로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현대의 다원화, 도시화, 산업화가 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집단들이 밀집되어 한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어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주민참여는 정책수립과정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우선 주민참여는 지자체가 행정수요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의 기능을 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의 주체성을 받들고 지자체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해를 미칠 가능성을 줄여준다.

“탁아제도의 운영은 당연히 지자체의 주민복지증진 업무에 속하며 현 지방자치법에 “유아원의 설치, 운영·지도”가 지자체의 사무로 명시되어 있다”

지방자치와 탁아정책

또한 주민참여를 통해 지자체가 수행하려는 정책에 협조와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주민들 자신도 지자체의 행정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민참여 방식으로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계가 수직적이나 수평적이나에 따라 지자체가 주도하거나 주민주도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자체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접촉을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나 조직적으로 할 수 있으며 공식적 주민참여 방식으로는 청원서, 주민투표, 주민위원회, 공개토론 등이 있고 비공식적 방법으로는 개인이나 단체가 지자체에 건의 및 의견제시하는 것과 로비활동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참여에 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주민참여의 정도나 방식은 지자체의 재량과 주민들의 적극성에 달려있는 것이다.

2. 지방자치와 탁아정책

다음에는 지자체의 기본 특성을 고려하여 탁아정책이 지자체와 어떻게 관련되며 탁아정책의 제 측면이 어느 단체의 관할에 속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논의 해 본다.

우선 탁아정책은 아동복지, 부녀복지, 근로기준, 생활보호대책 그리고 교육정책의 여러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탁아제도의 운영은 당연히 지자체의 주민복지 증진업무에 속하며 현 지방자치법에 “유아원의 설치, 운영, 지도”가 지자체의 사무로 명시되어 있다. 탁아제도는 또한 동시에 국가의 교육정책, 근로조건, 또는 국민복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관할에도 속한다. 현 영유아보육법에는 지자체에 영유아보육위원회를 두고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보건사회부령에 따르게 되어 있다. 법규의 해석은 광범위할 수 있으며 여러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탁아정책에 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관계에 여러 유형이 나타난다.

국가가 소극적인 역할을 하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탁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만 마련해 놓고 모든 발의와 술선이 지자체에서 나오는 방식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법령을 기준으로 감독, 지시, 재정을 철저히 담당하여 지자체는 따라가기만 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럼 탁아정책의 거의 모든 면이 지자체 주도로 결정, 운영되고 중앙정부는 거의 명

“한 지자체의 주민들간의 특성은 이질점보다 동질점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탁아와 관련된 문제들을 더욱 쉽게 극복하고 뚜렷한 정책방향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다”

업무 통일이 뭐야?

목적 역할에 한계되어 있는 제도의 장단점을 살표보기로 한다.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탁아제도의 장점으로는 ① 지자체가 탁아정책을 전적으로 맡아서 설계한다면 그 지역의 특수상황을 더욱 잘 반영하여 그 지역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지역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지자체는 주민들의 요구를 탁아정책에 그대로 반영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탁아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

즉 지역탁아로 할 것인지 직장탁아로 할 것인지, 탁아기능에 교육기능을 어느 정도 첨가할 것인지, 시설탁아와 가정탁아의 비율 설정, 보육료를 어떻게 얼마로 선정할 것인지, 공공탁아소의 대상범위는 누구이며, 보육사의 자격기준을 어떻게 선정하고 앞으로 탁아수요가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지 등 등, 탁아정책 마련시 해결되어야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잘 파악하여 지역특성과 주민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 지자체의 주민들간의 특성은 이질점보다 동질점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탁아와 관련된 문제들을 더욱 쉽게 극복하고 뚜렷한 정책방향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점과 함께 탁아정책이 전적으로

지자체관할에 있다면 다음과 같은 단점도 따른다. ① 지자체의 재원의 한계에 따라 탁아시설의 팽창에 제약을 받게 된다. 각 지자체 자체의 재원외에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탁아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사업의 양적 질적 측면이 좌우된다. 특히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도시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② 지자체간의 탁아제도에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지자체의 행정능력, 재원확보능력, 지방공무원의 성향,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특정지역은 탁아제도가 잘 마련되는 반면 영세지역에서는 탁아제도정착에 큰 어려움이 따라 지역간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간의 재원편중과 지역간의 소득격차문제로 인해 탁아제도의 지역간 형평성을 잃을 수 있다. ③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지방공무원이 중앙공무원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탁아문제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의 재정립과 유아교육의 제도화가 요구되는 만큼 보수세력의 반감을 많이 사고 있다. 서양국가의 경우 사회개혁의 의지는 중앙정부에서 보다 많이 시도되어 왔으며 지방정부는 사회적으로는 더욱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지방정부의 보수성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탁아문

“ 그 지역 주민에 맞는 탁아정책이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으려면 지금, 탁아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해야 하며 주민과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

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난 20년간 점차적으로 커졌다. 물론 중앙이 더 보수적이나, 지방이 더 보수적이나, 어느 정부기관이 개혁정신을 실행할 수 있느냐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농촌이나 개방화가 덜 된 지역에서는 아직도 유아보육은 어머니의 고유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탁아문제에 관해서는 서양 국가와 같이 지방정부가 더 보수적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과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탁아정책은 세울 수 있지만 또한 위와 같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제약점을 극복하고 지자체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탁아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탁아제도의 기본법안은 국가차원에서 마련하고 법안의 내용으로는 탁아서비스제공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다.

② 저소득지역에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거의 중앙정부의 보조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③ 지자체로 하여금 탁아시설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탁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을 설치하거나 그외의 방식으로 유인체계를 중앙정부

가 마련한다.

④ 지방자치법이나 영유아보육법에 탁아제도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투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도를 마련한다. (예로, 주민탁아위원회)

⑤ 지자체마다 탁아제도에 관련된 법규를 마련하고 그 내용에는 민영-공영 탁아, 시설-가정 탁아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탁아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내용, 재정체계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이 탁아제도에 대한 총괄적인 기본 기준 설립, 지자체에 재정보조보장, 저소득 지역 탁아재정담당, 지자체의 탁아사업 증진을 위한 유인체계 제공을 중앙정부의 의무로 하고, 그 외에 구체적인 각종 시설기준, 탁아대상, 탁아방식과 기능에 대한 것은 보사부가 아닌 지자체가 공식적인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설정하고 운영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됨에 따라 각 지역마다 그 지역주민에 맞는 탁아 정책이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으려면 지금 탁아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해야 하며 주민과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의지에 그 성공의 여부가 달려있다고 본다.

선생님 통일이 뭐예요, 엄마 통일이 뭐야?

교 육 부

이후 통일의 주체가 될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심어주어야 한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것이며 유보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인 교사와 부모가 통일에 대해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

한반도가 외세에 의한 전쟁을 치르고 난 후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민족과 땅덩어리가 갈라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전 민중이며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꼭 통일이 되어야 한다. 통일은 정치인들만의 과제가 아니며 우리 한반도 전 민중의 과제이다. 일터와 가정 모두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일을 일궈내야 한다. 우리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후 통일의 주체가 될 것이다. 이후 통일의 주체가 될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심어 주어야 한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것이며 유보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 올바른 통일관은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올바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 교사와 부모가 통일에 대해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가? 통일에 이르는 첫번째 과제로써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하나라는 민족동질감을 회복해야한다. 분단의 상처로 남아있는 이질감을 극복해야한다.

얼마전 남북이산가족 찾기 운동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확인했듯이 남한 사람과 북한사람은 만나야할동포, 너무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온 가족일뿐

분단의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의 개입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남한과 북한의 어른, 아이 모두가 자신있게 맞는 방법으로 통일을 일궈내야 한다.

이다.

원래부터 하나의 민족이었던 우리는 왜 갈라져서 그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가? 우리는 철저한 반공교육에 의해서 전쟁의 원인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남한을 적화 할 목적으로 침공했기 때문이라고 알아왔다. 분단의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의 개입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분단의 주범이라고 돌리고 있다.

통일은 환상이나 이상이 아니다. 또한 몇훔날 우리에게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아니다. 통일은 우리 발밑에 있는 현실이다.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노력해서 끝내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야 할 일이라는 의미이다.

남한과 북한의 어른, 아이 모두가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통일을 일궈내야 한다. 어른 각자는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방법을 자신의 위치에서 찾아야 하고 아이들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맞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 통일교육의 내용

이상에서 어른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가를 알아봤는데 세번째 모든 사람이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이들도 그들에게 적절한 지식과 행동을 위한 지침이 주어질 때 그들에게 알맞는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아이들에게 알맞은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우선 우리가 대하는 탁아소 연령의 아이들이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3~5세 아이들의 사고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아이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유추해보도록 하자.

이 아이들의 사고특성은 자기중심성이다. 자신 주변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만을 수용한다. 그러므로 자신과 가족 이외에 다른 사회현상에 대해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지금껏 경험했던 것, 구체적으로 느꼈던 것을 매개로 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알고 있는 개념이 가족이다. 북한과 남한의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 할 수 없이 헤어진 가족이

아이들이 생활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알고 있는 개념이 가족이다. 북한과 남한의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 할 수 없이 헤어진 가족이며 만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어야 한다.

며 만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다. 민족동질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땐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면서 학습되어질 수 있다.

이에 더 나아가서 남한과 북한의 민중들은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고 좋지 않은 사정에서 미·소의 개입으로 6·25라는 전쟁을 치뤄 서로 갈라져 있어 만날 수도 가볼 수도 없으며 우리는 꼭 만나야 한다는 것을, 꼭 만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제도교육권 내에서는 통일에 대해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5차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동서 화해분위기와 북방외교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에 맞추어 그 이전의 반공교육을 통일안보교육으로 바꾸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교과서 속에서 우리는 같은 조상의 한 민족이므로 만나야 한다는 당위는 설정하고 있으나 "우리"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통일의 주체가 한쪽(남한 민중)으로만 강조되어 실제로는 북한을 통일을 이룰 공동의 주체로 바라보기보다는 극복되고 소멸되어야 할 존재로 설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즉, 통일을 민중 전체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야 할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수 정치인이 외교를 통해서 한쪽 체제가 다른 체제를 흡수·통합하는 형식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 신문 6월 1일자에 난 통일교육에 관한 기사에서 실은 국민학교 3학년생의 말은 우리네 통일교육의 현실과 아이들 의식의 단면을 나타내준다고 본다.

"텔레비에서 보니까 북한 아이들도 우리와 같이 가족과 단란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문제나 책은 다르게 나와요. 내 생각대로 시험에 쓰면 답이 틀리니까 답은 학교에서 배운대로 쓰죠"

이러한 명분과 행동이 다른 부분은 유치원 교육과정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교육을 아직 제도권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발행되는 자료집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이 구성되므로 유치원 교육에 있어서 제도권의 영향은 크다.

1990년 전국 유치원교사 모임 하계 수련회에서 '통일·우리나라'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그 속에서 유치원 교육에서 올바른 통일교육

현 제도권 교육과정은 아이들에게 동질감을 심어주는 커녕 편향된 시각의 왜곡된 논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반통일적인 시각을 전달할 수 밖에 없다.

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유치원 교육과정 안에 있는 왜곡된 현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놓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 교육과정 내에서 이야기나누기와 슬라이드 자료를 통해 북한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을 강조하며 멸공의 자세를 갖도록 하는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아이들에게 동질감을 심어주는 커녕 편향된 시각의 왜곡된 논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반통일적인 시각을 전달할 수 밖에 없다.

다시말하면 우리가 통일교육의 시초로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동질감을 이와같이 제도권 교육속에서 올바르게 심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올바른 통일교육을 위한 탁아소 교사와 자모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시금 강조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내용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무엇일까? 분단과정에서 외세개입, 한반도 땅덩어리의 분단, 공산주의, 공산주의자 등 아이들의 경험속에 그려지지 않은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이 그것이다. 통일의 과정과 내용이 많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려줘야 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며 우선 민족동질감을 갖도록 도와주고 이후 그러한 지식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때에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내용의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마다 경험의 내용도 다르고 이해력도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별적인 차이에 따라서 질문을 할 때 바르고 쉽게 대답을 해준다고 지 받아들이 수 있는 아이가 많을 때에는 작은 집단을 만들어서 교육 내용화 해서 알려줄 소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통일교육의 필요성, 통일에 대한 올바른 생각,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 통일교육의 방법

이제는 실제로 아이들을 대했을 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우선 부모의 역할을 살펴보자. 부모는 형식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는 없다.(여기서 형식적인 교육활동이란 준비된 교구를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부모는 가정생활속에서 아이들을

항상 남과 북의 사람은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야 할 가족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대하며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게 된다. 집에서 무슨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할 수도 있겠으나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라고 했을 때 집과 부모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집에서 동화책을 사줄 때에 우리 민족의 기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사 줄 수도 있을 것이며 요새는 여러 작가들이 통일 동화들을 펴내고 있으므로 통일동화도 사 줄 수 있다. 또 6월이 되면 텔레비전에서 6·25에 대한 편향된 시각의 반공이데올로기 주입용 선전물이 많이 나온다. 이럴 때 아이들 혼자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 함께 보면서 올바르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대화의 기회가 있을 때에는 항상 남과 북의 사람이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야 할 가족임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교사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탁아 교사는 부모들보다 오히려 더 긴 시간동안 아이들과 함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어야 하는데 위에서 부모들의 역할이라고 했던 부분을 모두 해 줄수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형식적인 교육활동을 통해서 하게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두개 탁아소에서 실시하는 활동을 살펴보았다.

♥ 우리동네 아기동지 ♥

- * 기간 : 6월 첫째주
- * 제목 : 우리의 소원은 통일
- * 목표 : 현충일을 맞이하여 한민족끼리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는 것을 알아 모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돕는다.
- * 활동 : 이야기 나누기
노래 -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작업 - 삼천리 강산 꽃동산 만들기,
“싸움은 싫어요” 그림 그리기
동화 - 다람쥐 동산
게임 - 금강산 가보기

♥ 진달래 동산 ♥

- * 시기 : 6월 첫째(4째주에 집중적으로)
- * 주제 : 아름다운 우리나라
- * 목표 :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 안다. 조국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생각해 본다. (조국의 통일 - 민족동질성에 중점)
- * 활동 : 1,2,3주에는 아름다운 우리나라라는 주제를 전반적으로 하며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한 부분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동화 - 장산곶 장수매, 고구려 설화, 단군신화
노래 - 우리산 우리강 등

앞에서 두개 탁아소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았다. 시기는 통일의 달인 6월에 맞춰하고 현충일과 6·25를 분기로 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현충일에는 고마우신 분들이라는 주제로 민중사적 입장에서 여러 인물을 소개할 수도 있고 분단의 계기인 6·25를 시기에 맞춰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민족에 대한 이해 속에서 북한과의 동질성을 갖도록 하며 통일을 염원하도록 한다.

목표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잡았지만 실제 활동의 진행에서 상황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 나갔다. 이와같은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북한과 남한이 한민족이라는 것과 가족을 못만나게 되면 슬프고 보고 싶듯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실제 성과이다.

이상의 글을 통해서 통일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해보았다. 이 글이 정확한 분석과 함께 정확한 내용을 풍부히 담는 역할을 하지 못했으나 각 부모와, 개 탁아소에 분산되어져 있는 생각을 모으는 데는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 글을 시초로 해서 앞으로 더욱 풍부한 논의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더욱 올바르게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 부록 - 통일교육 자료 묶음

■ 시사칼럼 ■

91년도 반을 보내며

황 은 희 (한국여성연구회 간사)

요즘들어 나는 정치가 우리 생활 하나 하나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시장에 가면, 들르는 가게마다 어느사이엔가 엄청 올라버린 물건값들에서, 집안에서는 들여다보는 T.V 뉴스가 정부의 앵무새로 전락해버린 사실을 느끼면서, 또한 너무나 허황된 내용의 드라마를 보면서, 더구나 이어지는 사건들을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려고 이러나”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심한 패배주의에 빠져들곤한다. 전형적인 소시민인 내가 이런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은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 할일이 워낙 없다보니 생기는 헛 생각하고는 그 질이 다르다. 이런 현상을 언론에서는 선거시기에 하는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 극도의 제도권 정치의 불신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떠든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넓은 의미에서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살고 있으며, 사람들과 알게 모르게 서로 조절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치는 이런 넓은 의미보다는 대다수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가의 주권자가 국민과 영토를 다스리는 행위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사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존재 한다 해도, 국가 주권자의 성향에 따라 국민을 다스리는 행위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는 이렇게 간단히 설명 할 수 없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주권자가 어느 계급의 이익을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내용은 달라진다. 인간의 역사는 정권이 대다수 민중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도록 싸워왔으며 우리의 역사도 소수 재벌 중심의 독재권력에 맞서 대다수 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권을 세우기 위해 해방 이후 줄곧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워 온 역사이다. 그러나 40여년간 계속 되온 이 싸움은 87년의-올해처럼 꽃다운 청년들의 죽음의 댓가로-전국민 항쟁에 의해 무언가 변화를 기대하며 6공정부를 맞았다. 그러나 1년이 채 가기도 전에 그 변화에 대한 기대는 치솟는 물가, 집

값, 더없이 극악한 노동자 탄압, 환경오염, 청년들의 죽음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즉, 87년 6·29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현 정권은, 그 선언 자체가 6월 항쟁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기만이었음을 반증하듯, 연이은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7, 8월 파업 투쟁을 무자비 하게 진압하고, 12월의 부정선거로 출범한 정권이었기에, 대중적 지지가 취약하고, 반민주적인 정권이 가지는 약점과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켜 왔다. 대다수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기는 커녕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사대주의외교, 부정, 부패, 무능, 민생파탄, 그리고 폭력성으로 권력을 유지시켜 온 것이다.

90년 들어 오면서, 국민들의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점차 거세어지고, 민중운동이 조직화 되어 가자 권력유지에 불안을 느낀 현정권은 이를 억압하는 각종 정책과 탄압정치로 일관하였으며, 의원 내각제의 음모를 꾸미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민자당을 만들어, 국민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 정국을 순신간에 뒤집어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기도하였다. 그후, 3당합당이 국민들을 무시하고 속이는 것이었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유래없는 고물가, 저임금, 주택난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가자 힘에 의한 통치를 강화해 나갔는데 이것이 공안통치이며, 작년말 노재봉 친위내각의 출범으로 공안정국은 그 절정에 올라 있었다.

91년 벽두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 뇌물성 외유 사건, 수서 특혜사건, 치솟는 물가, 집

값, 임금인상 한자리수 동결 선언, 여기에도 더욱 우루과이 협상과 대소련 외교에 있어서의 굴욕적인 모습, 대개벌의 폐놀 방류 사건에 대한 방조, 임시국회기간 중 그동안 조그만 기대를 걸고 있었던 군조직법, 국가보안법, 방송법의 날치기 통과 등 정권의 부도덕 경과, 반민중성 반민족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으며,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민주화 운동세력을 적으로 몰아 부쳐, 시위대를 향한 권총발사를 예사로 행하고, 불법 체포, 구속, 구금 불법, 연행, 고문을 자행하고 있었다. 또한 안정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내각제도의 개편 음모를 꾸미다가 제도정치권에서조차 심한 반발에 부딪치자, M16을 각 파출소에 지급하는 등 폭력을 일상화하여, 소위 공안통치의 절정에 달하여 있었다. 이때, 명지대 학생인 강경대씨가 백주대낮에 백골단에게 맞아 죽는 현 공안정국이 맞을 필연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후, 이에 항의하며, 현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전남에서 박승희씨가 제물을 불사르더니, 곧이어 5월 2일 안동대생 김영균씨가 분신 32시간만에 죽고, 5월 3일 경원대생 천세용씨가 분신으로 향거하더니, 5월 6일에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의 죽음이 발표되었으며, 5월 8일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서강대에서의 분신 투신, 5월 10일 전남대에서 윤용하씨의 분신, 5월 18일 강경대씨의 장려식날 연대 앞에서 이정순씨의 분신, 같은 날 전남 보성고등학교 학생인 김철수군 분신 등 연일 죽음의 행렬이 잇따랐다.

그러더니 드디어 5월 25일 성균관대생 김귀정씨가 시위 진압 경찰에 쫓기다 비오는 길거리에서 그 생을 마감하는 사건까지 이르게 되었다.

1991년 우리나라의 봄은 죽음에서 시작하여 죽음으로 마감한 셈이다. 그 어느나라의 역사에, 불과 한달 사이에 아홉 사람 아니 열사람-박창수씨도 그들이 죽었음에 틀림이 없기에-이 죽어 나가고, 세사람이 죽음 직전의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있었는가? 왜 이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백주에 생 사람을 패서 죽이고, 토끼처럼 몰아서 죽이고, 스스로 제 몸에 불지르고 몸을 던져 항의 할 수 밖에 없는 세상이라니. 현 정권은 어디 이들만 죽였으랴? 그 가족에게도, 그리고 죽음을 애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않았던가? 강경대씨가 죽었을 때 쇠파이프는 든적도 없고, 학생과 대치하지도 않았다고 늘 들어오던 오리발을 내밀더니, 김기설씨가 죽었을 때 배후세력이 있고 자살을 방조하고, 심지어는 교사했다고 선전하고, 이정순씨의 죽음은 이혼당한 정신병자의 죽음으로 매도하지 않았던가. 그때 그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번 죽은 주검에 대해서 또한번 죽인 셈이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당해 왔다. 지배세력은 우월한 힘을 기초로, 혹은 노골적인 협박을 통해서, 때로는 여론조작이라는 방식으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 할때, 어느 누가 누

구에게 죽음을 강요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강요에 의해 버릴 바보가 있겠는가? 현 정권이 한 인간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러한 식의 발상을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진 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열사의 경우, 안기부의 개입여부가 점차로 확인되고, 자살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점차 입증되어 가자, 경찰은 영안실 벽을 뚫고, 시신을 탈취하려는 일조차 감행하지 않았는가?

현정권은 이런 국민적 분노를 단순히 언론을 통한 역선전을 통해 무마하려 하고 있다. 일단 국민적 관심을 끈 다음, 어느덧 호지부지 만들어, 민중의 관심에서, 망각 시키면서, 그러는 가운데 일단 급한 불(현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을 끄고자 하는 것이다. 강경대 열사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를 '우발적이고, 유감스런 사건' 이라고 규정하면서 내무부 장관의 교체와, 전경 5명 구속 등 약간의 수선을 떨뿐 실질적인 책임자의 어떤 추궁도 하지 않았다. 사건의 직접적 원인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억압의 철폐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거나 개선 할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각종 수단과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서 일련의 사건들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 되었던 것처럼, '우발적인 것이거나, 유감스러운 사건' 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 위기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지배세력의 의도가 노골화된 89년

봄 부터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으며, 정치적으로는 92~93년의 정치적 재편기를 친미 독재세력인 현정권의 재집권의 의도하에 자행된 3당합당과, 90년말에 구성된 '노재봉친위돌격체제'의 필연적 산물로써, 그간 민자당의 추악한 정치적 파쟁에 실망하고, 물가 등의 경제정책의 실패에 분노하면서, 눈에 보이는 노동현장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던 대대적인 공권력 탄압으로 인한, 경제적·정치적 분노를 속으로만 삭여오던 대중들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30만, 40만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 격렬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민적 항의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한진 노조 위원장 박창수씨 죽음에 대해서는 계속 회피하고 있으며, 여전히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태평양 노조 조합원들의 파업농성을 경찰력으로 진압하고, 대우정밀 노동자들을 구속하는 등 자성하기는 커녕, 국민적 분노를 본질이 똑같은 인물로 국무 총리를 바꾸었으니 되었다는 식으로 기고만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이러한 정세에서, 정권식 국무총리 서리의 외대에서의 봉변은 젊은이들의 죽음에 비하면 일고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기로 정국을 광역의회 국면으로 몰고가, 국민적 축제 분위기로 가장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미봉책에 대한 민중의 항쟁은 격렬하고 진지하였으며, 산자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끔 하였다. 곧 바로 범국민 대책회의가 꾸려져, 지금까

지 명동 성당에서 싸움을 주도하고 있으며, 죽어간 열사들의 뜻을 잇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현정권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억속으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또 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잊지 않고 있다.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가슴에 불로써 새겨 놓고 있다.

죽어간 자식들의 시신을 부여안고 살아가는 어머니들이 이 땅에 더이상 생겨 나서는 안된다.

현재의 민족민주운동진영은 각 계층에 맞게 정치투쟁을 조직화 해내야 한다. 87년 6월 항쟁이후 증가된 조직대중 뿐 아니라 미조직 대중을 흡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나가야 한다. 그런 입장의 연장 속에서, 일하는 기혼 여성노동자들도, 올봄 죽어간 자식이 지금은 비록 내 자식이 아니지만 앞으로 내자식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현재 싸움을 통해서 올바른 민주정부가 수립되지 않는 한 내자식이 끊임없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 현장에서의 싸움에 충실하고,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내 현장의 비인간적 일들을 고치는 일부터 시작하여, 정권을 바꾸는 싸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권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이 되어야만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물가, 집값 문제등을 해결할 수 있다. 정권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할때, 노동자의 문제는 올바르게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동놀이 방」을 찾아

농사꾼의 삶속에 붙박은 마당 깊은 집

편 집 부

6월 7일 우리는 태백산맥의 주무대요 역사현장의 뿌리인 남녘땅끝 별교로 향하고 있었다.

밀으로 내려 갈수록 짙어지는 나무색이며, 쥐어 찢듯한 밤안개가 과거의 시간대로 옮겨 놓은 듯 했다. 별교는 옛부터 교통의 요지라(보성·고흥·광주로 잇는 삼거리) 변화가로 꼽힌다던데 밤11시가 다되어 도착한 탓인지 소박하다못해 적막하고 단출하게 느껴지는 것이 낯선땅임이 실감되었다.

.....

늦은 시간까지 서울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김미영선생님(33세)과 부군이신 이필환 목사님이 계시는 보성군 별교읍 척령리 원동 마을에 있는 원동놀이방을 방문하였다. 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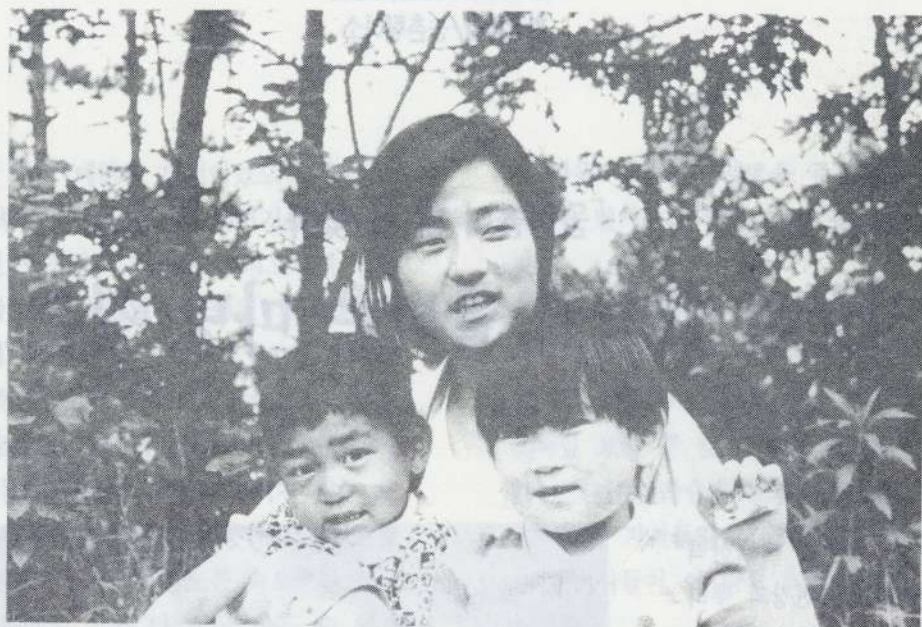
에서 묵는 어색함도 깨끗하게 정돈된 서재에 깔려진 이부자리로 한없이 따뜻하게만 느껴졌다.

마당깊은 집 원동놀이방

문두드리는 소리에 부시시 잠결을 쫓는데 세살박이 재훈이라는 수기없는 녀석이 벌써 놀이방에 온 것이다. 어찌되었던 재훈이 덕분에 이른아침

동네한바퀴를 돌아볼 수 있었다. 너른 마당에 기와집 놀이방... 열평남짓한 실내공간이 감나무 줄기 그늘아래라 더욱 근사해보였다. 열악한 도시의 빈민지역이나 공단지역의 협소한 공간에 비한다면 한없이 부러웠다.....

어쩐일인지 아이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국민학교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하



는 소풍날이란 다. 약 30분 걸리는 뒷산으로 가는 소풍에 아이들은 온통 난리속이다. 그 틈을 타 우리는 꼬막(별교는 꼬막으로 유명하다)을 손질하는 김미영 선생님의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원동놀이방은 88년 10월에 개원했는데, 당시 결혼가정의 6살짜리 아이(엄마가 서울로 도망가 할머니랑 살았던)가 물에 빠져 죽은일이 발생하여 부랴부랴 서둘러 탁아소문을 열게 되었다고 한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결혼가정의 아이들이 많아요. 농촌에서 살지 못하고 자식마저도 버리고 도망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농촌의 현실

이죠. 농촌이 살만한 곳이라면 아니 먹고 살 정도만 되었어도 이런 현상은 없었겠죠. 젊은 사람들도 도시로 쫓겨나고 노인들과 결혼가정의 아이들만이 농촌을 건디고 있는 셈이죠.”

이곳에서의 생활이 가면 갈수록 하고 싶은 말들이 잊혀져 간다며 새삼스러운 듯 말을 이어갔다. 냉소적인 마을 주민들의 태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한집 한집을 돌아다니며 설득하고, 아이들을 말아 기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놀이방엔 아이들이 늘어났다. 이제는 이농현상으로 아이들이 줄어드는 실정이다. 현재 12명의 아이들이

아침 6시30분에 와서 오후 3시 30분까지 이곳에서 지내는데 요일별 계획표를 통해 아이들의 교육이 진행되어진다.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비해 열악한 교재의 부족이 교육의 한계로 부딪히기도 한다. 낡은 동화책 한권도 구하지 못하는게 현 농촌탁아소의 실정이 아닌가 싶다.

“힘들죠. 여기는 도시처럼 자원봉사자의 개념도 없을 뿐더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되돌려져야 할 혜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저 아이들 보호하고 나름대로 교육해내는 것만으로도 됐다는 식으로 농촌아이를

취급하는(정말 이것만으로도 농촌 실정으로 보아선 커다란 혜택일 수 있을것이다.) 정부태도를 볼때 너무 화가 나요.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아이들이 놀이방에서 공동체 생활을 습득해나가고, 결핍된 애정들이 힘있게 커가는 것을 확인할 때는 힘든것도 다 사라져요”

놀이방이 생기고 나서 마을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없어졌다며 간간히 섞여드는 사투리가 큰 자부심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3년전부터 일해온 이곳 토박이 장경순(22세) 선생님의 말이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다. 부모들에게 받는 보육료 4만원은 아이들 간식과 점심식사로 다 들어가며, 교사들의 활동비가 발로 뛰어 얻어내는 후원에서 충당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때문에 몇번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결코 한명의 아이라도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로, 또 다시 눈물겨운 다짐으로 추스리고, 웃기를 여미고 일었다고 한다. 과정 과정이 출발로 여겨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통 원동놀이방의 마당을 깊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김이 익을 무렵 꿈도 영글겠지(?)

꿀목을 빠져 산을 오르는 아이들 발걸음이 우리를 제치고 저만치 향하고 있었다. 풀통이라는 동화는 허리춤엔 올성실은 들풀속으로 꿈틀거리듯 재빠르게 오르고 있었다. 주책없이 문득 태백산맥의 주인공들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별교시내가 아담하게 한눈에 들어왔다.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산을 잘 타죠. 저기 보이는 학교가 남국민학교예요. 저기는...” 쪽 별교읍을 소개하는 김 선생님의 손끝을 보면서 아슬하게 떨리는 과거의 시간들을 더듬는듯 했다. “별교는 재미있는 곳이죠.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론 도시의 모습을 함께 갖고 있죠. 이런 이중구조 때문에 더욱 진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일이죠”

그래.

참으로 모르는 일이다.

늦게 도착한 그시간에도 그랬었고 아침 일찍 마을을 돌아갔을때도 영락없이 아낙이고 아이고 할것없이 온통 부지런히 어망을 짜고 있는 모습들이 그러했다.

“참 골치중에 하나예요. 꼬막 양식에 쓰이는 어망을 짜는건데...”

옛부터 남도지방의 여인들이 텃밭농사에 못지 않게 신경쓰고 썬내는 농사가 삼농사였다고 한다. 더운 기운속에서 물기 머금은 땅이면 어디서나 잘자라는 이유도 있지만, 여인네들이 이 일을 통해 알토란 같은 뭇돈을 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남도땅엔 엄청난 노동력속에서, 한 귀퉁이엔 우리의 생명기운을 앗아가면서, 알토란 같은 부수입을 위해 꼬막그물에 매달려 있는것일까? 도급제로 그물짜는 일을 온 집안 식구들이 밤낮없이 해서 평균 100만원에서 많이 버는 집은 최고 2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한다. 추석때 한번 큰뭇돈을 쥌 수 있는 유일한 알토란 같은 수입원인 것이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꼬막양식업자에게 느닷없이 빼앗기는 노동력을 계산해내지 못하

는 우리의 농촌은 이렇게 그 물의 땀땀히 속으로 얹혀들어 가고 있었다.

산을 내려와 놀이방 앞마당에 날씬하게 서 있는 감나무를 지켜보고 있자니 올 추석에도 영글 우리의 뼈아픈 노동의 땀가가 허하게 그려졌다.

.....

어느덧 산에서 내려온 아이들로 마당은 분주했다.

척박한 남녘땅에
뿌리를 박고

“농촌의 근본적인 해결만이 방치되어 있는 농촌의 아이들도 해결할 수 있어요”

농사꾼의 삶속에 불박고, 이들을 이웃으로 애뜻한 사랑을 키우고 부화했던 전라도 지방에서의 삶이 10년이란 다.

강산을 변화시킨 세월속에서, 피폐화되어가는 농촌의 삶속에서, 말라가는 농사꾼들을 무던히도 오래지켜본 셈일까?

“이젠 원동 마을에도 순수 농사꾼은 30%밖에 남아있지 않은 모습을 지켜본셈이니까. ...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농사꾼의 아이들은 가난과 함께

가정에 대한 껍질함에 일찍부터 길들여지죠. 그나마 도시의 빈민아이들에겐 기만적인 해도 혜택(?)의 가능성을 제공하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나 농사꾼의 아이들에겐 그나마도 없는거죠.”

꾸을 강조하는 김선생님은 삶의 현상이 껍질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농촌속에서 열심히 견디며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실천으로 옮길 뿐이라는 말이 오래도록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힐 수 밖에 없는 우리의 농촌.

이젠 농사보다는 품팔이를 위해 고향을 떠나는, 그래서 농촌의 아이들은 줄어 들고 농사짓는 집 아이들이 없어지는, 그래서 더욱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은 정부가 이농정책으로 일관하는데서 부터 출발한다. 농업구조와 농업정책의 부재가 낳은 농촌의 방치아동-농촌의 아이문제는 곧 가난의 문제이며 곧 생명의 근원의 문제이다. 바쁜 일손을 덜어주고 아이를 보호한다고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번기탁아소도 모내기철과 추수철에 1개월씩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울도 농업정책의 부재속에서 실시하는 농번기 탁아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다음의 실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실제 전남지역은 237개면이 9431개 부락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면단위 1개의 농번기 탁아소를 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얼마나 형식적인 발상에서 부터 출발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농촌이라는 곳은 1년내내 일을 하기 때문에 농번기탁아소의 이용은 저조할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경운기사고나, 농약, 익사의 위험에서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1개월씩 하는 계절탁아소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못될 뿐 아니라 부모의 노동시간에 비해 탁아시간이 짧아 실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농촌아동에 대한 보호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농촌의 아이들을 위험속에서 보호하려면 농촌아이들에 대한 관심속에 전액국고에 의한 상설탁아소의 설치가 시급히 되

어져야 하며, 이에 앞서 농촌에 대한 탁아정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을 살리는 일은 곧 국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죠. 이 속에서 농촌의 우리 아이를 바라보아야만이 올바른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정책이 부재하고, 농업정책은 아예 뿌리채 뽑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농사를 지으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들이 주체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럴때만이 우리의 모순은 깨어지리라 봅니다.”

상설 탁아소로 그 뿌리를 지켜내고 있는 원동놀이방. 그안의 아이들이 선택받은(?) 아이라 감히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갑자기 혼란과 답답함속에 무겁게 두통 꺼리로 매듭짓는다. 필요를 넘어 절박하다 못해 애절하기 까지한 농촌의 현실-더욱 참예하게 사회구조적 모순을 까칠하게 피부로 느껴본다.

.....

“별교에선 처음이에요”

일어서는 앓은뱅이 산

“그 래 요 ?
의외인데요”

보성고등학교 생이었다 분신한 김철수군의 영구행렬이 광주에서 출발해 별교읍을 지나 보성으로 간다고 한다. 여정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우리로선 이 행렬을 볼 수 있을지 아

슬아슬한 시간이었다. 찬찬히 세심하게 점심상을 차려주는 김미영선생님의 고마움과 아쉬움을 남긴채 원동을 벗어나 별교읍을 들어섰다. 서너명의 교통순경이 무언가 기다리며 서있는 모습이 왜그리 적절해보이던지, 서울거리를 휘젓는 최루가스가 한없이 대비되었다. 어느덧 사람들이 모여들고 멀리서 만장의 깃발들이 어룽어룽 거렸다. 순식간에 별교읍을 메운 인파들이 모두들 조심스럽게 응시하고 있었다.

.....



인간적인 삶속에서 진지한 삶의 공간을 일궈내고 같이해 나가는 두분선생님의 헌신적인 활동이 끝없이 펼쳐진 만장깃발위로 한장 한장 포개어졌다 푸드득 하늘끝으로 사라지곤 했다.

죽어가는 농촌의 시골뜨기 아이를 가슴에 묻고 앓은뱅이 마을에서 다시 일어서는 산. 발치 저끝으로 사라지는 행렬의 뒤끝을 끝까지 잡아 담으며 야간열차에 몸을 싣는다.

.....

서울의 새벽공기는 우리를 소스라치게 했다.

옷이 아이들을 가두고 있다.

민족생활문화연구소,
(민족입거리연구회)

얼마전 T.V를 보는데 어느 아동복브랜드의 선전이 나오고 있었다.

무겁게 깔리는 음악과 함께 검은 양복에 나비넥타이 검은 모자를 쓴 남자아이가 온갖 고뇌를 다 짊어진 표정으로 등장하고, 그 뒤를 이어 화려한 레이스로 장식된 옷에 모자를 쓰고 수줍은 듯한 여자아이가 나와 여차여차해서 둘이 어깨를 걸고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또, 한 중저가 아동복브랜드의 포스터에서는 정말 아이일까 싶은 모습의 대여섯명의 남·녀아이가 딱 붙은 청바지, 초미니 청치마에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검은 쥘차에 올라 앉아 온갖 폼을 다쥔 모습이었다.

난 T.V를 심취해서 보는 편도 아니고, 거리의 포스터를 유심히 보는 편도 아니지만, 무심한 나의 눈에 비슷비슷하게 비춰지는 이러한 선전물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전물에 꼬리를 이어, 아이들의 요청(?)과, 주로 어머니들의 권유(?)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흉내내기 식의 옷을 앞다투어 입고 있다.

과연 아이들은 무엇인가?

이 역사를 짚어지고 나갈 다음세대의 주인이요, 이 땅의 꿈나무이다.

아이들은 밝게 자라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그들에게는 가장 큰 노동의 형태-즉, 놀아야 하는 것이다.

이 땅의 흉내음을 말고, 그 흙을 먹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흙에서 상처를 입기도 해야 한다.

옷은 아이들이 밝고 희망차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 청바지는 질기기는 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건강에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물이나 땀에 젖은 상태

“ 우리의 역사를 밝고 희망차게 열어아할 우리의 꿈나무를 뜻모를 영어 글자에 뒤범벅이 되어 서양의 공주님이 되는 꿈을 꾸면서 자라게 할 수는 없다 ”

로 2시간이상 심한 운동이나 등반을 하게 되면 관절염이 생길 위험이 아주 높고, 특히 유독한 공업용 화공약품으로 탈색가공을 하는 물빠진 청바지(스노우진)는 피부염, 피부암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우리의 역사를 밝고 희망차게 열어아 할 우리의 꿈나무를 뜻모를 영어글자에 뒤범벅이 되어 서양의 공주님이 되는 꿈을 꾸면서 자라게 할 수는 없다.

비단 아이들 뿐만이 아니다.

80년대 이후 우리의 입거리문화는 극도로 사치스러워졌다. 한 유학생의 말을 빌자면 6년만에 돌아오니 이곳은 별세계처럼 화려하고, 서구에서는 입거리로 인한 열등감없이 공부하던 자신이 이곳 공항에서부터는 초라한 옷차림때문에 계속 푸대접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와는 무관한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전두환정권등장 이후 우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사치향락문화를 조장시키려는 저의이다. 국산섬유제품의 기술향상과 수출촉진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이땅에 외국상표가 등장하기 시작한 79년 이후, 지금 온 거리를 뒤덮고 있는 외국유명브랜드는 3~6%라는 비싼 기술사용료(로열티)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외국의 경우 1~3%) 기술지도나 이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우리의 시장만 공략당해 사치풍조

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이후 교복자율화(82년), 천연텔레비전 보급,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는 세계의 만만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88올림픽 이후 지금은 외국의 유명브랜드들이 손꼽을 수 없이 몰려들고 있으며, 백화점이나 직매점에서 날개돋힌 듯 팔려나가고 있다.

게다가 유명브랜드를 사입을 수 있는 계층의 한계때문에 이제는 저가 브랜드-E랜드, 언더우드, 헌트, 미스미스터 등-을 만들어싼 값에 좋은 것을 입으려는 서민들의 구매 욕구까지 모두 대재벌에서 확보하려하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면서도 저 소득층의 옷값지출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거리를 확보하는 청소년들의 옷 맵시는 일본잡지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그래서 이제는 이사를 가려면 입지 않는 옷 보따리가 놀랄만큼 늘어나면서도 입을만한 옷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자주 사지 않으면 시대에 뒤쳐지는 것 같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의상심리학에서는 욕구불만이거나,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상대적으로 걸이 화려해진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옷을 입어야할까? 당

“전통의 재창조가 우리에게 다시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물질중심으로 사물을 봄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인간중심의 형식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히 우리는 ‘우리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옷이란 단순히 ‘한복’이라든지 ‘개량한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복은 조선말기 한 유행형태였고 일제식표기로 붙여진 이름으로 우리옷 형태의 모든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옷의 현재적 모습이 ‘개량한복’이란 단어로 규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옷’이라고 불렀었고, 지금은 서양옷이 옷의 기본이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 우리옷이라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일제에 의해 왜곡되고 해방이후 맥이 잘려버린 우리옷의 기본모양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형·집구조·자연환경·노동 등과 연결되면서 활동에 편리한 것을 으뜸으로 삼았다.

옷감은 폭을 그대로 살리면서 한치의 낭비도 없었고, 직선재단으로 평면적인 옷을 만들어 입체적인 인체에 맞도록 주름이나 끈으로 고정시켰으므로 자체적으로 풍성하고 여유분이 넉넉하여 통풍효과를 얻었다.

옷이 상·하로 분리되어 있어 입고 벗기 편했으며 조선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저고리와 치마의 비율이 거의 같아 현재의 옷 입음새와 흡사하였다.

또 옷에 ‘트임’을 주어 온돌과 좌식생활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염색에 있어서도 색깔을 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입는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초로 물을 들여 입기도 했다고 한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기능하지 않은 얘기다. 이러한 각 사례에서 우리는 그 중심을 관통하는 신토불이(身土不二)의 정신을 찾아내게 된다.

전통의 재창조가 우리에게 다시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 형태의 흉내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중심으로 사물을 봄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인간중심의 형식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의 입거리 문화가 허리를 졸라매고 직설적으로 성적 매력을 복돋우는 것이라면 우리옷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노동의 아름다움이 강조된 생산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옷은 얻어 입은 것처럼 풍성하게 입어야 제맛이 난다고 한다.

입거리 문화에 대한 이러한 자각으로 ‘우리옷 입기운동’이 5~6년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다. 그리하여 민족의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민족의 염원이 담긴 옷을 입기를 주장하면서 활동에 편리한 ‘일옷’, 함께 어울리는 ‘놀이옷’, 우리의 민족성과 민주시민의식이 담긴 ‘뜻옷’을 만들어 널리 보급했다.

그것은 생활문화운동의 일환으로 확산되며 ‘스스로 만들어 입는’ 우리옷 문화를 형성해내는 한 계기가 되었다.

수 필

어린이날에 생긴일

이경순
(자원활동가·서강대)

지난 5월 5일 한양대에서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유아교육을 위한 서울지역 교사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가 공동주최하는 아이들의 큰잔치가 열렸다.

엄마, 아빠, 놀이방 이모, 삼촌, 전교조 선생님의 손을 잡고 모여든 아이들의 함성으로 행사장인 한양대 운동장은 스탠드가 무너질 뻔 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신나하는 재잘거림. 호기심에 찬 눈망울들을 바라보며 버스안에서, 지하철안에서 겪었던 악동들의 시달림도 모두

잊었을 것이다. 이날 행사를 살펴보면, 대운동장에서는 우리 전통의 공동체 놀이들이, 강당에서는 만화영화상영, 인형극, 노래배우기 등이 있었고 아이들의 그림과 사진전시가 있었다.

아이들이 활기차게 놀았던 대운동장의 놀이들은 아스팔트와 상업화된 T.V프로그램에 익숙해 있는 아이들에겐 새롭고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었을 것이다.

탈춤배우기, 꽃마차타기, 모래장난, 새끼꼬기, 큰종이에 맘놓고 낙서하기... 그야말로 우리의 놀이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 또 아이들이 그린, 어른들의 가슴을 콕콕 찌르는 그림들과 탁아소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이 담긴 사진도 야외에서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동안 교실에서 아니면 좁은 방 안에서 공부에 찌들며, 놀공간이 없어 아스팔트로, 전자오락실로 내몰렸던 시든 콩나물같은 아이들이 이날만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마당



큰 맘놓고 노래부르며 달릴 수 있었다.

시든 콩나물이 다시 힘을 찾았다.

선생님들을 감시하러, 몸소 아이들의 잔치를 염려해 주러 오신 학교의 높은 자리에 계신분들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저렇게 환한 얼굴로 뛰어 노는데 무얼 걱정하러 오셨습니까?' 하고 묻고 싶었다.

숨막히는 공부에 찌들지 않고, 친구를 경쟁자로 미워하

지 않고 밝게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 바라는 세상일 것이다.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을 「불법단체가 주최하는 불순한 행사」라니요!

정리시간에, 나는 운동장 여기저기 널린 휴지조각들을 보며-어느사이 휴지한점 없이 말끔히 치워진 운동장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만 있었다.

'산더미 같던 휴지조각도 아이들의 조그만 손으로 깨끗

이 치울 수 있었다!'

모든 아이들이 밝게 건강하게 클 수 있는 세상도, 또다른 혜영이 용철이가 죽거나 다치지 않는 세상도, 시험성적으로 바보로 놀림 받지 않는 세상도 우리아이들과 함께 라면 꿈 이룰 수 있겠다는 희망, 그것이 바로 그 순간에 내 가슴을 가득 채운 것이었다. 참 귀하고 무서운 아이들이었다.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여성문제

가정의 성폭력을 중심으로

홍영주(여성의 전화 사무국장)

여기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남성으로부터 여성에 대하여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넓은 의미의 폭력을 말한다.

가정 내 폭력은 폭력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도록(90년에 들어서만도 아내를 칼로 찔러 사망케 하고 말리던 장인까지 칼로 찌르고 방화까지 한 사건, 부부싸움 끝에 아들과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 등 5건에 이름) 사회의 심각한 병리현상으로 부각되어 지지 못한다. 비록 가정 외 폭력은, 불특정인이 대상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 보다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에 그쳐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날로 증가하고, 다양한 형태를 띠며, 더욱 더 흉폭해지기만 하는 가정 외 성폭력의 실태와 그 증대 원인 및 해결대안을 담고자 한다.

▶ 성폭력의 증대 원인

88년 우리나라 여성 10만명 중 최소 23명이 성폭행당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수치는

서구(서독19명, 영국 17명, 프랑스 10명, 일본 3명)보다 현저히 높은 것이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신고율이 2%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훨씬 많은 여성들이 성폭행당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남자들이 다른 나라 남자들에 비해 호색한이거나 보다 공격적이고 폭력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란 말인가? 물론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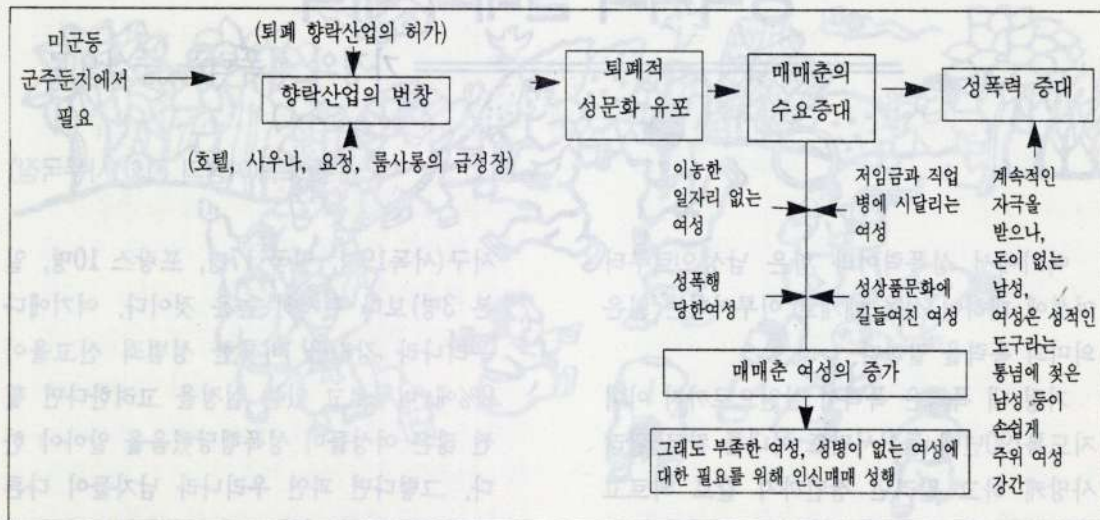
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정치가 불안정하고, 분배가 공정치 않고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곳은 어디든 성범죄가 성행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성폭력 증대 원인은

첫째, 향락산업의 비대화와 성폭력 문화의 증대이다.

우리나라의 왜곡 되어진 산업구조(3차산업의 비정상적인 비대화)와 잘못된 접대문화 등을 원인으로 향락퇴폐업소가 전국에 등 록 되어진 업소만 45만개나 될 정도로 급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비공식 통계로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의 숫자가 150만명으로 추산되는

실정이다. 독점자본의 제조업 외의 투자가 증대하여 향락산업의 비대를 가져오고 매매춘의 수요증대 및 성폭력이 증대되는 과정을 간단히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둘째, 정권이 주도하는 3S정책이다.

이는 소위 3S라 지칭되는 섹스, 스크린, 스포츠를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우민화 정책을 의미한다. 남성의 관심을 성과 외설영화, 스포츠에 고착시켜 남성들이 당하는 정치·경제적 소외와 고통을 일시적 쾌락을 통해 무마시키려 하고, 이로써 남성들의 순응을 이끌어 내려 하는 것이다. 영웅호색이라는 말이 시사하듯 남성다움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성을 바라보는 폭력적 성개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셋째, 강간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비롯한 건강치 못한 성문화이다.

성폭력에 관련된 잘못된 통념들을 보면

① 강간이란 여성의 동의없이 남성이 폭행과 협박에 의하여 행한 불법적인 것이기는 하나 어쨌든 육체적인 성관계이다.

이는 곧 여성의 순결상실을 말하는 것이다. 강간이 가장 강도가 높은 폭력의 한 형태로 이해되기 보다는 여성이 정조를 잃는 성관계로만 비쳐질 때 피해여성들의 정신적

피해는 보다 심해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문제의 심각성에 은폐되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강간이 강도높은 폭력의 한 형태임은 구 타남편의 40% 이상이 사랑했다는 미명으로 강간하여 결혼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강간죄를 담당했던 검사가 가해자인 피고를 기소하기 보다는 좋은 대안으로서 피해여성에게 그 강간 가해자와 혼인 하라고 권하고 있으며(89. 12. 8 조선일보), 여성에게는 목숨걸고라도 자기 몸하나 지키지 못한 여자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 이러한 통념에 의해 가해자인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소문내겠다고 위협하며 당당히 돈을 요구하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극단적 예까지 나오는 것이다.

② 피해자가 밤늦게 혼자 다니거나 혼자 술을 마시는 등 행동에 허점이 있었다.

대한민국이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임을 표방하면서도 단지 여성에게만 야간통행의 자유, 술을 마실 자유가 위협을 감수할 각오없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다(밤늦게 술마시고 혼자 귀가하던 중 입맞추며 성적희롱하려는 불량배 혀를 깨물어 오히려 폭행죄로 구속되었던 변월순씨와 같은 사례도 있다.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라는 영화로 제작).

③ 피해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거나 음담패설 등의 행동을 통해 성폭력을 유발했다.

서울시경이 성범죄 수감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1. 5. 27 한국일보)에는 성범죄의 원인으로 여성의 과다노출을 들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범행 동기를 보면 계획적 의도적이 50.7%로 가장 많고, 계획적이지 않은 것이 17.9%였다. 결국 계획적인 범죄가 70%에 가까운 수치임에도, 굳이 여성의 과다노출이 성범죄 원인이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④ 피해자가 저항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다른 모든 범죄가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는가가 판단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데 반해 유독 강간에 있어서만 피해자인 여성이 얼마만큼 저항했는가가 가해자 유죄의 척도가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러나 피해여성들 대부분이 흥기를 사용하거나 폭행하는 가해자 앞에서 살모사 앞의 개구리 심정으로 숨도 크게 쉴 수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피해사실이 남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혹은 자기에게겐 엄청난 불이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항 못하고 당하는 경우 역시 많다. 흔들리는 바늘에

실을 뿔 수 없다는 통념이 이제는 깨져야 한다.

⑤ 남성의 성적 욕망은 불가피하게 충동적이다.

인간의 성적 욕망은 생리적이고 본능적이기 보다는 사회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인지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에 의해 밝혀진 바이다. 따라서 강간은 단순한 성충동과는 관련이 적으며 성을 상품화하는 풍토와 더 많은 관련이 있다 하겠다.

결국 이러한 통념은 강간을 성욕의 노예인 불쌍한 남자가 단지 남자이기 때문에 억제하지 못하고 저지른 충동적인 범죄로 여기게 한다. 그리하여 가해자인 남성이 관대하게 받아들여지고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게 되는 것이다.

▶ 성폭력의 실태

강간의 유형은 첫째 일반적 남성이 일반 여성에게 저지르는 강간행위, 둘째, 근친간에 일어나는 강간행위, 셋째,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지배하기 위한 강간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간행위, 네째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된 경우 부부간의 강간행위, 다섯째, 아동학대 형태의 강간행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일반적 남성이 일반적 여성에게 저지르는 강간행위.

세일즈를 하고 있던 박양은 물건을 팔겠다는 욕심으로 저녁에 만나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해 보자는 김씨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장소를 옮겨 더 이야기하자는 요구도 별 의심없이 받아들여, 따라 간 곳은 레스토랑의 바로 뒷층인 소위 러브호텔이라 지칭되는 위장된 숙박업

소이었다. 숙박업소임을 알아채고 강경하게 저항하면서 웨이터 및 카운터에게 방 필요없다고 외쳤건만 결국 그들은 제일 구석진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에 끌려 들어가서도 도망치려 했지만 2중 3중으로 닫혀진 문때문에 다시 잡혀 들어와야 했다. 그래서 도망친 곳이 화장실이었는데, 김씨가 웨이터에게 화장실이 잠겨 사용할 수 없다 하자 바로 화장실 열쇠를 갖다 주어 다시 끌려 나와 강압적인 폭력을 당하면서 결국 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회의 많은 이들이 강간의 공범이라는 것이다. 여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강간이 전체의 60%가량 되는데, 피해자들이 도와달라고 소리칠 때 업소측에서는 모르는 척하고 있으며 오히려 범죄장소를 제공하는 등 감금범죄를 돕고 있다.

택시기사에게 납치당했던 여성이 지나가는 경운기에 탄 청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택시기사와 의기투합한 경운기 청년에게까지 윤간당했던 사례 역시 우리 사회의 성도덕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② 근친간에 일어나는 강간행위

최모씨는 입시공부때문에 따라 나설 수 없다는 남매를 할 수 없이 남겨둔 채 부부만의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다녀와 그 동안 잘지냈느냐는 엄마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이 없이 공포에 떠는 딸의 표정에서 최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다. 여러번 다그쳐 묻는 말에 모기소리로 대답하는 내용을 들으니 하늘이 노렸다. 오빠가 비디오를 보면서 동생을 강간하다니, 옆집 아줌마가 꽤 화끈하다고 일

러주어 빌려보고는 무심히 방치한 채 집을 비웠던 것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근친강간의 경우 계속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강간 가해자와 일생동안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강간에 비해 휴우증이 크므로 긴급한 격리가 필요하다.

③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간

이제 겨우 신참티를 벗은 김양은 장주임의 배려에 늘 감사하며 지냈다. 어느날 밖에서 만나자는 장주임의 요구를 별 생각없이 거절하였더니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어 불량이 잦다느니, 근무태도가 안 좋다는 등 압력을 가해왔다. 할 수 없이 만났는데 유부남인 그는 맨처음부터 사랑을 느꼈다면서 강제로 여관에 끌고 가 강간하였다. 만일 거절하였을 경우, 겨우 잡은 직장을 놓칠 우려가 있어 할 수 없이 응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 관계는 특별한 결단이 없는 한 지속되기 쉽다.

1988년 신발제조업 산업 전직장에서 농성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A급 미성사인 이양. 단지 그러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표를 받아내기 위해서 안전관리인 3명으로부터 사설 고문실(고장난 엘리베이터)로 끌려가 구타당하고, 온갖 욕설과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기진맥진 하여 결국 사직서를 쓰게 되었다.

86년 그 유명한 권인숙씨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가 고문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강간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

노동통제나 정치적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회적 폭력으로서의 강간행위이다.

④ 부부간의 강간행위

여성의 전화 면접 상담자의 35%가 두들겨 맞은 뒤에 비참한 상태에서 강간당한다고 하여 이럴 경우 죽고만 싶다고 한다. 노르웨이와 같은 경우 남편이 술취한 상태에서만 강간하여도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이 3개월간 구금된다고 한다.

⑤ 아동학대 형태의 강간행위

9살때 옆집 아저씨에게 강간당했던 김부남씨는 계속 강간증후군에 시달리다 20년이 지난 후에 가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고 현재 구속중이다. 영생애육원 원생 집단강간사건 역시 이 강간유형에 속한다 하겠다. 유아 때의 성폭행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하며 대인관계 공포증, 기억장애, 집중장애 등 강간증후군을 가장 오래 심하게 앓게 된다.

▶ 해결대안

성폭력은 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으로 강간증후군이라는 커다란 영향을 남긴다.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해결대안으로서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안, 피해자에 대한 보호·치료적 차원에서의 대안, 더 이상의 폭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통제적 대안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대안을 제시하는데에 전제되어야 할 점은 성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이 사회의 사회 구조와 문화의 피해자라는 점이다.

①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안

평등한 남녀역할관, 올바른 남녀관을 세우고 새로운 성교육을 위시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해야 남녀평등한 성문화가 정착되고 고정관념적 성역할 태도

가 극복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폭력을 묵인하고 오히려 조장하기까지 하는 우리 시대의 폭력문화를 비판하여 쇄신하려는 범사회적 노력을 벌여야 할 것이다. 여성의 취업기회가 확대되어야 직장내에서 상사에 의한 강간이 사라질 수 있다.

남편의 늦은 귀가의 원인이기도 한 잘못된 어진 접대문화가 고쳐져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성폭력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향락산업이 규제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② 피해자에 대한 보호·치료적 차원에서의 대안

강간피해여성은 상해, 임신, 성병 등 신체적 피해와 수입상실이나 치료비 등의 경제적 피해 외에 장기간 공포, 우울, 불안, 모욕감, 복수심, 성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피해여성에게는 자신들이 겪는 신체적 피해를 치료하고, 여성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나 여성문제 차원에서 조명하여 대처하게 하는 여성의식화 작업이나 여성심리상담을 통해 치료하고 재사회화하는 사회적 보호책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자신있게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고 강간퇴치운동으로까지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강간피해자 여성의 모임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해 일방적인 순결이데올로기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③ 통제적 대안

처벌 만능주의의 발로인 특별가중처벌법의 강력한 처벌은 오히려 강력하고 흉포화된 범죄를 부르는 경향이 있다.

이보다는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예방하고 치료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 공동육아제도의 전망 -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양육을 걱정하는 모임’ 엮음

과연 아이를 키우는 일은 본능적으로 엄마가 가장 잘 할 수 있는가?

탁아제도의 문제점이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엄마가 키우지 않아서라고 단순히 말할 수 있는가.

현대의 핵가족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자녀들의 양육문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공동육아(특히 탁아)라는 방법을 통해 그 해결의 전망을 제시한 책.

■ 책의 구성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 ‘육아의 현실과 이념’은 탁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제2부 ‘탁아정책의 대안모색’에서는 관 주도 탁아사업의 문제점 제시와 바람직한 탁아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제3부 ‘미래의 탁아환경’은 탁아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규명과 교육적 차원의 탁아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제1부 육아의 현실과 이념 정책대상으로서 아동을 보는 시각:장필화(이대 여성학과)/어머니가 키우는 아이와 탁아소에 다니는 아이-고정관념과 그의 극복:정진경(충북대 심리학과)/우리의 가정환경, 과연 자녀양육에 바람직한가:조혜정(연대사회학과)/도시빈민 농촌지역에서 가족구조의 변화와 양육, 탁아:조옥라(서강대 사회학과) 제2부 탁아정책의 대안 모색 탁아제도-국가개입과 민간시장:조형(이대 한국여성연구소)/탁아소문제해결의 건축도시계획적 접근 방안:유재현/탁아수요 연령층의 여성의 취업특성과 탁아정책:조은(동국대 사회학과)/관 주도 탁아사업과 영리화의 문제:성문영/탁아정책 모델과 재정제도의 선택:이혜경(연대 사회사업학과)/공동양육제도 관련법의 문제점과 대안:박주현(변호사) 제3부 미래의 탁아환경 탁아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환경교육:김형국(서울대 환경대학원)/탁아소: 삶의 방식을 익히는 곳:정병호/영유아를 위한 탁아프로그램의 방향-탁아문제에 대한 교육적 접근:양옥승(덕성여대 교육학과)

우리 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한울-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하여 힘찬 활동을 전개하자!

80년대 이래 기혼여성 노동자의 취업률 증가와 함께 자녀양육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있어 왔으며 민간탁아운동을 전개해 온 주체들은 89년 정부의 탁아정책 개입을 추동하게 되어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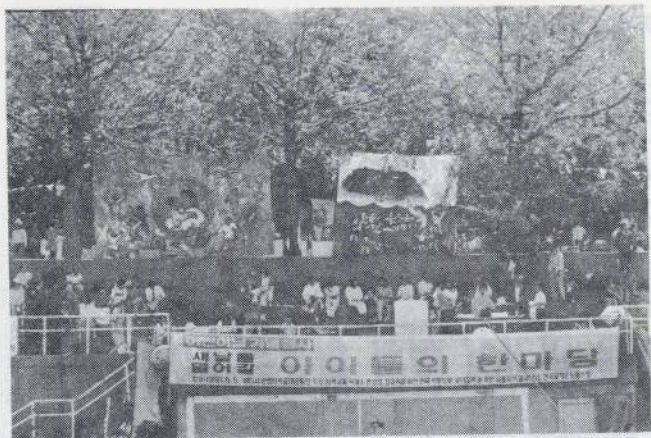
그러나 89년 9월 19일 개정 공포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지원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자의적인 선정의 문제와 국가의 정책의지가 희박한점, 직장탁아, 농촌탁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 그리고 민간비영리 탁아소에 대한 규제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러한 정부의 미온적인 정책은 급기야는 혜영·용철이의 사건을 낳게

되었다. 한편 이 시행령에 근거한 90년 9월 18일 신고 조치로 민간탁아운동세력들은 지역탁아소들 규제, 탄압하려는 저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에 대한 거부와 올바른 탁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싸운 결과 민자당의 법제정 의지를 불려 일으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민자당의 탁아법안은 스스로의 입법 취지와 위배된 저소득층의 절박한 탁아요구에 대한 책임이 결여된 채 오히려 탁아소의 양적·질적 확대 및 자율성등을 저해하는 규제법안으로 90년 6월 법률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민간탁아운동 세력은 이 법 통과저지 및 올바른 탁아법 제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거부를 위해 혼신

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거대여당의 횡포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이에 우리는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수정된 내용을 그간의 우리 활동의 성과물로 삼으며 앞으로의 활동과제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목표로 성과와 한계를 가시화 시켜내고 적극적인 탁아행정의 개입으로 탁아정책을 견제해 나가고자 한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이 실행의 의지가 없으면서도 명분상 내놓은 내용을 실제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악법적인 요소가 온존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전면 개정투쟁으로 돌입하고자 함이다.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마당 개최**

5월 5일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초등지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 유아교육을 위한 서울지역 교사모임이 주최로 한양대학교에서 어린이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4개단체가 이번행사를 열게 된 것은 기존의 어린이 문화가 소

비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어린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심어주기 위한 작은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행사에는 3000명 정도의 부모와 어린이들이 참여했으며 행사당일 날 진행은 오전에 간단한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놀이마당, 만화영화 상영, 공연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진행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외에도 장터, 전시 등이 준비되어 그날의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으며 특히 동춘동 세쌍둥이 추모 탁아소

건립 기금마련 바자회가 열려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어린이 관련 단체가 처음으로 준비한 행사라서 진행상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어린이를 올바르게 자라게 하기위한 활동의 밑거름이 되리라 본다.



제5기 교육강좌 끝나다.

지난 6월 24일, 3월 11일부터 시작된 5기 교육강좌가 끝났다. 수료증을 받은 사람은 13명이며 그중 11명이 현재 탁아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일주일에 하루는 탁아소에 나가서 실습활동을 하고 두번은 강의를 듣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탁아운동의 관점을 세우는 부분과 아동교육, 탁아소 운영전반에 관한 것이었다.

교육생들의 평가속에서 아직 탁아소의 특수성에 맞는 시의적절한 아동교육 내용이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아동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속에서 교육할 수 있는 전문성을 얻게 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 교육강좌는 9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광고◆

지탁연 하계 수련대회가 8월1·2·3일(목·금·토)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승실대학교내 사회봉사관에서 열릴 이번 수련회에서는 상반기활동평가와 정세분석 하반기 활동계획에 대한 발제와 토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결의식이 진행된다.

• 함께 배우는 노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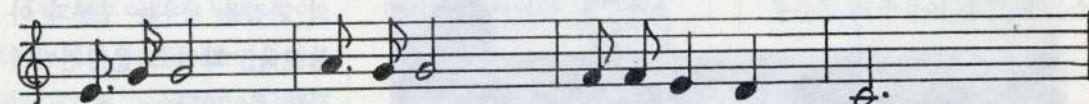
나는야 외로운 반쪽

조 정열 작사
손 영주 작곡



1. 나는야 외로운 반쪽이 예 요

2. 나는야 슬-픈 반쪽이 예 요



그 리 워 반 쪽 을 찾 고 있 어 요

보 고 싶 은 반 쪽 을 찾 고 있 어 요.



(후렴) 찾 았 다 찾 았 다 이 제 찾 았 다



사 랑 으 로 퐁 퐁 뭉 쳐 하 나 만 들 어 자

아이들과 노래 배운 후
노래에 맞는 율동 만들어본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란·어·떤·곳·일·까·요·?

60년대 이래 외형적 성장위주로 발달해 온 한국경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 환경속에서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의 희생을 그 댓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노동시간, 임금면에서 현저히 뒤떨어질 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짐까지 짊어지고 있는 일하는 기혼여성들의 노동조건에서 파생되는 모성보호, 출산양육에 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일터로 뛰어드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돌봐줌으로써 올바른 아동교육에 기여하고, 일하는 여성의 자녀에 대한 고민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펼쳐 나가는 곳입니다.

연혁

1985년 10월 지역사회아동교사회 창립
1987년 2월 지역사회탁아실무자연합회로 개칭
1987년 6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로 확대 개편
(현재 1000여개의 탁아소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중)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각 지역에서 작은 살림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탁아소들의 뜻을 모아 함께 모인 저희 연합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고 아울러 여러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다립니다.

- ① 정기회원 : 한달에 2,000원 이상
- ② 특별회원 : 정기적인 액수나 회비와 상관없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③ 지원교사 : 항상 일손이 부족한 탁아소에 함께 일하고자 하는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밖에 장난감, 동화책, 아동복 등 무엇이든지 후원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행구좌 : 국민은행 229-01-0077-545 중소기업은행 057-01-0137-805
한일은행 07901-078565 농 협 033-01-112755
조흥은행 903-1-004800

수 취 인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지탁연)

**엄마에게 일할 권리를!
아이들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발 행 일 : 7월 15일

발 행 처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편번호 140-160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127-1호 2층

TEL. 792-7767, 790-6693

발 행 인 : 김 경 태
